

◇대동맥판막치환술후의 대동맥 판막전후 압력차에 대한 분석

황경환, 박표원, 박계현, 전태국, 채현

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삼성서울병원 흉부외과

배경 및 목적 : 환자의 체격에 맞는 대동맥판막을 선정하는 것은 수술후 좌심실 유출로 압력차이를 줄일 수 있고 장기적으로 좌심실비후를 감소시킬수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.

방법 : 1994년 10월부터 1998년 7월까지 삼성서울병원에서 ATS 19mm, 21mm, 23mm 판막을 사용한 환자는 각각 17명, 35명, 39명이었고, Medtronic -Hall 20mm, 22mm 판막을 사용한 환자는 각각 7명, 9명이었다. ATS 19mm, 21mm, 23mm 치환환자의 체표면적은 $1.52 \pm 0.14m^2$, $1.54 \pm 0.13m^2$, $1.68 \pm 0.13m^2$ 이었고, Medtronic-Hall 20mm, 22mm 환자의 체표면적은 $1.57 \pm 0.2m^2$, $1.63 \pm 0.14m^2$ 이었다.

결과 : 수술환자의 조기사망은 없었다. ATS 19mm, 21mm, 23mm 판막의 평균압력차는 각각 $21.7 \pm 10.1mmHg$, $14.8 \pm 6.3mmHg$, $12.1 \pm 5.3mmHg$ 이었고, Medtronic-Hall 20mm, 22mm 판막의 평균 압력차는 $11.4 \pm 6.5mmHg$, $9.3 \pm 2.5mmHg$ 이었다.

결론 : ① ATS 19mm 판막은 평균압력차가 비교적 높게 나오므로 체표면적이 큰 환자에서는 사용을 피하는 것이 좋고 ② 이때 Medtronic-Hall 20mm 판막이 하나의 대안으로 사용될수 있겠다. 단엽판막인 Medtronic-Hall 판막의 장기성적은 추적관찰이 필요하다.

책임저자: 박표원 (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삼성서울병원 흉부외과)

발표자: 황경환 (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삼성서울병원 흉부외과)